



12. 193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시기에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신소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 ② 이 시기에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으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인들이 친일적인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었다.
- ③ 김기림, 정지용 등의 시인들은 감성보다 지성, 리듬보다 이미지에 호소하는 주지주의 경향을 바탕으로 한 시를 창작하였다.
- ④ 이 시기의 시는 3.1 운동의 좌절로 인한 허무와 패배 의식의 영향으로 감상적·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을 보였으며, 황석우, 홍사용, 박영희 등이 대표적이었다.

13.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을 찾을 수 있다.
- ② 이 신화를 통해 우리 신화의 원형과 당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천지 창조 신화이다.
- ④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여 시조인 단군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천손에 의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4. 다음 (가)와 (나)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과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과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 ① (가)의 시는 (나)의 시를 패러디 한 작품이다.
- ② (가)의 시 2연에 나오는 ‘전과’는 (나)의 시 2연에 나오는 ‘꽃’과 대응한다.
- ③ (가)의 시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시는 (가)의 시에 비해 발랄하고 감각적이다.

15. 다음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쩡그리네.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 -황현, 「절명시」
--	--

- ① 이 시는 『매천집(梅泉集)』에 실려 있다.
- ② ‘새’와 ‘짐승’, ‘강산’은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역사의 시련을 맞이한 지식인의 진정 어린 고뇌가 나타난다.
- ④ 고려 멸망의 소식을 접하고 순절(殉節)한 황현이 자결을 앞두고 쓴 시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 16~17번)

그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문학이라는 명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진실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들, 세태의 흐름을 좇다가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려 했다. 그 속에는 집에 대한 이해, 가치와 사고방식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힌 시약처럼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었으니, 문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군데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졌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인연이 닿는 집 안 어느 구석에 제법 향기 짙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설계를 하면서 나는 ‘이 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벽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매번 묻지만 대뜸 답할 만큼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사람에게 묻다 보면, 그 틈새마다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련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늘 다짐하는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어찌 방다운 방 하나를 제대로 구축해 낼 수 있겠는가? 모양이야 그럴듯하게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길동무가 되어 주고 깊이를 더해 가며 교체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우여곡절의 한복판에서 내 땀에는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살펴보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 둘 사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태를 거스르며 삶의 지표를 부단히 증거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 그 둘을 곱게 접어, ‘그 자리, 그런 집’이 뚜렷이 찍힌 데칼코마니를 완성하고 싶다.

16. 윗글의 서술 방식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학과 건축 간의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건축의 관념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
- ④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은이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 ② 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보다 질 높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
- ③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④ 문학과 건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18. 다음 <보기> 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시어가 적절하게 짝 지어진 것은?

< 보 기 >

까마득한 날에  
( )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 )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 )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曠野)」

- ① 땅 - 국화 - 영웅(英雄)
- ② 하늘 - 매화 - 영웅(英雄)
- ③ 땅 - 국화 - 초인(超人)
- ④ 하늘 - 매화 - 초인(超人)

19. 다음 빈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편견. ‘이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일꾼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 준다. 더구나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도 없다. 인재가 재산인 나라 대한민국은 곧 인재가 부족한 나라가 된다.

(중략)

국제 연합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50년에도 중간 나이가 41.1세인 젊은 나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같은 해 중간 나이가 53.9세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미국의 비결은 간단하다. 이민이 미국을 젊게 한다. 우리도 발상을 바꾸면 된다. 일본도 최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노인들은 아픈데 간호할 사람이 없고, 어찌겠는가? 독일도 1960년대 외국 인력 교체 순환 정책을 썼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반발했다.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자들이 정착할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독일이 혼란에 빠졌다거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후문은 없다. 오히려 일꾼이 문화까지 들여오니 ( ) 아니겠는가? 이주 노동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 ① 一刀兩斷                      ② 一魚濁水
- ③ 一望無際                      ④ 一舉兩得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미국 정부는 기밀( ) 자료가 유출( )된 정황을 인지( )하자마자 곧바로 유출자 색출( )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① 記密 - 類出 - 認知 - 嚟出
- ② 記密 - 類出 - 認智 - 索出
- ③ 機密 - 流出 - 認知 - 索出
- ④ 機密 - 流出 - 認智 - 嚟出